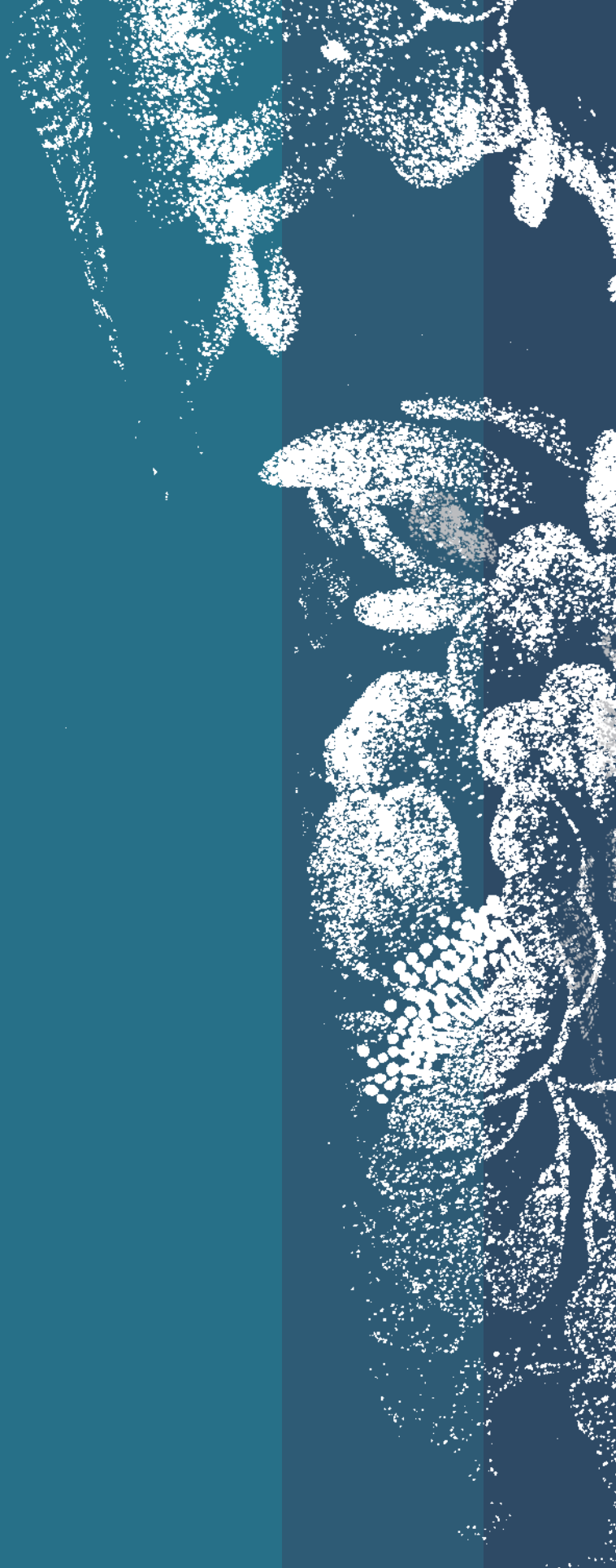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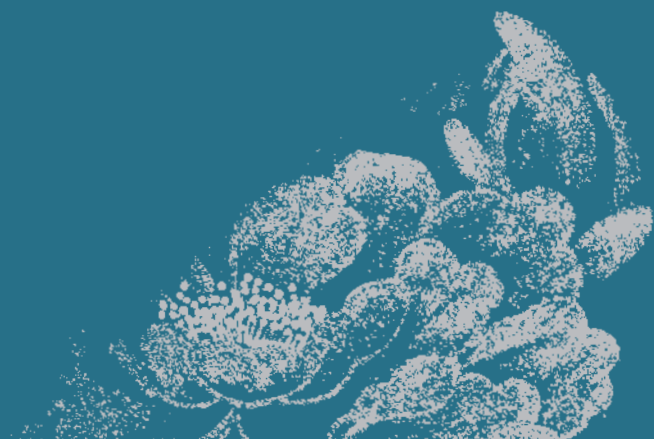


IV

영부인 예복

기품을 자랑하다

각 대통령의 영부인들은 전 세계에 한복을 알리는 외교사절로서 품위와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어 금박이나 자수, 그림 등을 활용하였다.







28

무궁화 자수 치마저고리

1980 | 공단

프란체스카(Francesca Donner Rhee, 1900~1992) 여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인임에도 한복을 즐겨 입었다. 치마와 동일한 천으로 조끼말기를 달고 자락형 통치마로 만들어 입기 편하도록 디자인하였다.



29

봉황 무늬 은박 치마저고리

1980 | 노방 | 이순자(李順子, 1939~) 여사

전두환 대통령 취임 만찬에 이순자 여사가 입었던 옷으로 봉황과 구름을 은박으로 한복 전체에 찍어 화려함을 더했다.







30

분홍 회장 치마저고리

2000 | 두들긴 명주 | 이희호(李姬鎬, 1922~2019) 여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했던 이희호 여사는 젊은 시절부터 짧은 통치마 한복을 즐겨 입었고 영부인 시절에도 착용하였다.



31

모란 무늬 금분 치마저고리

2007 | 노방 | 권양숙(權良淑, 1948~) 여사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에 권양숙 여사가 착용했던 옷으로 금분으로 크고 화려한 모란꽃을 표현하였다.



32

깃 없는 두루마기

1974 | 양단, 색동단

두루마기의 깃을 없애고 분홍색 양단에 안감을 색동으로 하여 편리함과 화려함을 추구하였다. 겉과 안을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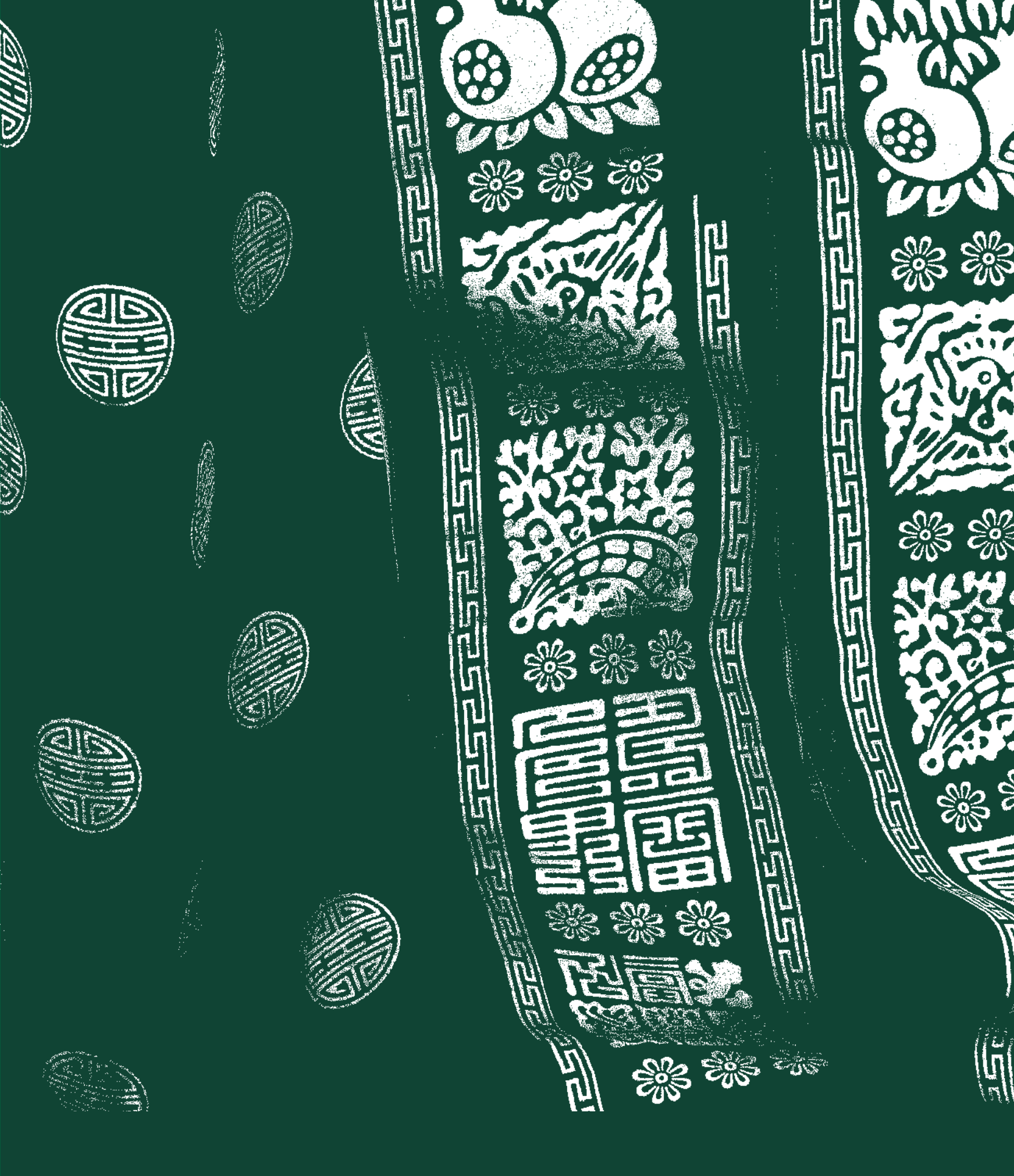
V

행사용 예복

기념비로 남다

바이어스로 재단한 색동, 금박 등을 대담하게 이용하여 전통적인 오방색의 아름다움과 한복의 화려함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33

색동 바이어스 드레스

1974 | 숙고사 | 74년 미스코리아 김은정

1974년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미스 유니버스 대회 최우수 민속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키가 작은 동양인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 사선으로 재단한 색동 치마가 특징적이다.



34

색동 드레스

1975 | 숙고사 | 75년 미스코리아 서지혜

흰색에 붉은색의 깃, 걸마기, 끝동, 고름을 단 삼회장저고리로 회자문, 화문을 금박으로 찍었다. 치마의 하단을 6단의 색동으로 이어주고 완자문, 화문, 문자문 등을 금박으로 찍어 화려함을 더했다.







35

용무늬 금박 드레스

1977 | 노방 | 77년 미스코리아 김성희

1977년 도미니카에서 개최된 미스 유니버스대회에서 착용하여 최우수 민속의상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리자 선생은 명함용 금박을 한복에 접목시켜 물세탁 가능한 금박을 개발, 금박 장식 기술을 성장시켰다.



36



오륜기 아플리케 무대복

1988 | 노방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작된 '88 서울올림픽 기념 패션쇼' 작품이다. 오륜을 아플리케 기법으로 소매와 치마에 장식하고 옷고름도 다섯개로 오륜의 색과 같이 통일하였다.



37

색동 다이아몬드 아플리케 무대복

1988 | 노방

88 서울올림픽을 위한 의상으로 다섯가지 색의 천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잘라서 소매와 치마에 아플리케 기법으로 대담하게 장식하였다. 옷고름도 무늬와 같은 다섯가지 색으로 처리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38

수壽자 무늬 금박 혼례복

1979 | 노방

녹의홍상 혼례복 전체에 수자 무늬를 금박 찍은 치마저고리가 단아하면서도 화려하다. 치마의 뒷 기장을 길게 하여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을 응용하였다. 1979년 이리자 선생의 따님(황의숙)과 2006년 외손녀(오유진) 결혼식에 착용하였다.



39

댕기형 드림

1979 | 노방

도투락댕기를 응용한 웨딩베일로 빨강과 녹색의 네가닥을 이중으로 연결하였다. 왕실 도투락댕기 문양을 금박하여 화려함을 더해준다. 수복 강령과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 문양에 혼례의 염원을 담았다.



VI

기타

“손끝에 눈이 달린 것 같다.”고 스스로 말했듯이 이리자 선생은 바늘을 놓지 않고 침선 기법을 계승 발전시킨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었다.









①

②

③

40

① 남아 돌복

1996 | 명주

남아돌복은 손자(황중원)의 돌복이다.

② 여아 돌복

1987 | 두들긴 모시

여아돌복은 외손녀(오유진)의 돌복이다.

③ 손누비 색동아기옷

1985 | 명주

1985년 제10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문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손누비 색동아기옷'은 해외 패션쇼를 다니며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바느질해 만들었다. 이리자 선생은 이동 중에도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으실 만큼 침선에 열정적인 분이였다.



41

조각누비 방장

1986 | 명주 | 가로 185cm 세로 250cm

한복을 만들고 남은 조각 천을 연결하여 겹으로 만든 방장이다. 숨을 두고 한땀 한땀 손으로 정교하게 누볐다.





42

축소본 저고리

2008 | 모시, 명주, 노방 등 | 가로 26.5~36cm

2008년 이리자 선생이 암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투리 천을 이용해 40여개의 작은 저고리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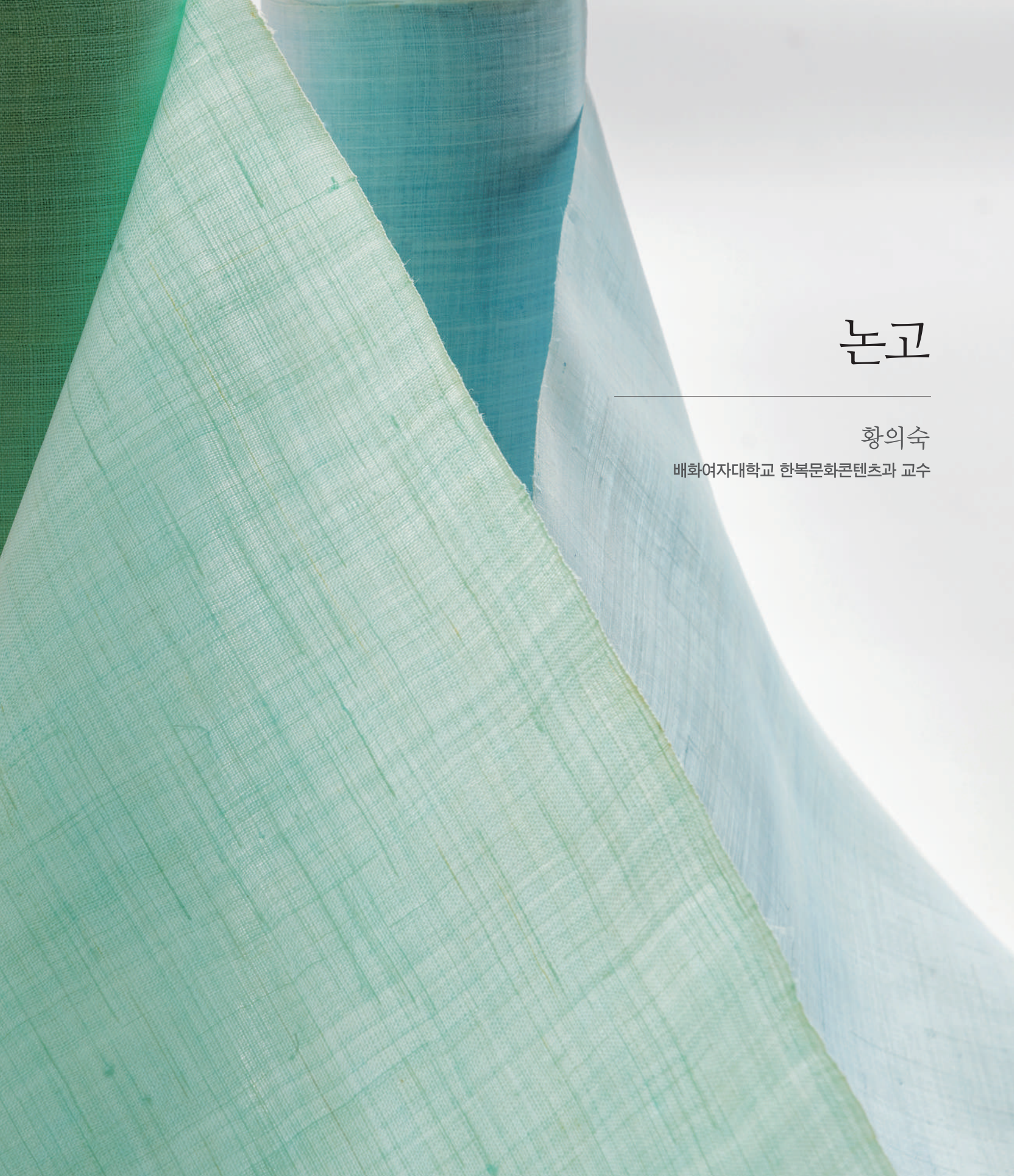
43

영화 '황진이' 저고리

1986 | 두들긴 모시, 명주

영화 황진이에서 주인공 장미희 배우가 입었던 저고리들이다. 소매의 배래선을 직선으로 하여 새로운 복고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리자선생은 1970년대 '아씨' '별당아씨' 등 TV드라마에서 의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논고

황의숙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과 교수

1세대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의 디자인 발상과 한복 이야기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과 교수 | 황의숙

I.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의 발자취

한복은 한국인들 속에서 뿌리를 내려 온 고유한 아름다움을 표현해준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지만 1960년대 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한복 개량 운동을 권장하여 한복을 예복이 아닌 실용 한복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한복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한복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한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변화가 요구되던 시기에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녀는 A-line형태의 치마 패턴을 개발하여 현재의 치마 착용 실루엣을 창조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French sleeve형태의 저고리 패턴을 개발하여 진동선이 없는 현재의 저고리 형태를 완성시켰다. 따라서 현재 착용되고 있는 치마저고리 실루엣을 완성한 장본인이다. 그동안 현대 한복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그녀의 업적과 작품 세계에 나타난 한복 디자인의 발상에 대해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 이번 1주기 회고전을 준비하면서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가 한복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 솜씨가 탁월했던 장인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본다.

II. 이리자의 한복 디자인이 현대 한복에 끼친 영향

1. 이리자와 이리자식 한복 패턴의 시작

일생을 한복 연구에 매진해 온 이리자는 한의사였던 부친 이종하씨와 모친 백채순씨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다. 전주이씨 덕청군파의 종손으로 유난히 제사가 많아 한복을 짓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를 마름질하는 방법과 바느질 방법 등을 배우게 되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멋장이었던 이리자는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본인의 교복을 직접 만들어 입었을 정도로 옷에 대해 관심이 높았었다. 1956년 황윤주 교수와 결혼할 당시에도 본인의 결혼 한복을 직접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한복 디자이너로 첫발을 내딛게 된 동기는 30대 젊은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던 남편과 함께 부부동반의 공식적인 자리에 자신이 만든 한복을 입었는데 그 당시 함께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들이 그녀의 한복 맵시가 좋은 것을 보고 한복을 주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육영수 여사께서 활동하시던 양지회까지 입소문이 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리자 한복을 착용하는 것이 정계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것을 본 주변의 권유로 1964년 양장점을 하던 사촌동생들과 ‘이리자한복연구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이리자한복연구소’를 개설하였다. 본명은 이은임이지만 연애 당시 남편이 부르던 애칭을 사용하여 이리자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경제 개발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외국에 대한민국 공관들이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한복을 착용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키가 작은 한국인들의 체형을 보완하여 한복에 대한 미적 감각을 높여보고자 연구하던 중 1970년에 이리자식 한복 패턴을 개발하여 실용화하였고, 새롭게 개발된 패턴으로 제작된 한복은 치마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이리자가 디자인한 한복은 현대화한 한복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전통적인 침선 방법을 기초로 하여 과거를 현재에 도입하여 한복의 장점을 잘 표현해 주었다. 이미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75년에 조선호텔에서 제1회 한복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70여 차례의 국내외에서 한복작품발표회를 개최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특별상(1984년), 문화예술진흥원장상(1984년), 문화재위원장상(1993,1994년), 문화공보부장관상(1985년) 등 수차례 입상하여 전통적인 침선방법의 발전과 계승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6년에는 그녀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리자한복전시관’을 개관하여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착용하는 통과의례복식을 제작 전시하여 교육적인 현장 학습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2002년에는 디자이너로서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장인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침선 기법을 계승시키고 보존하여 더욱 발전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제113호)을 수상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한복을 현대화시키는 작품 활동 속에서도 ‘제 34대 신사임당’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2. 업적과 현대 한복에 끼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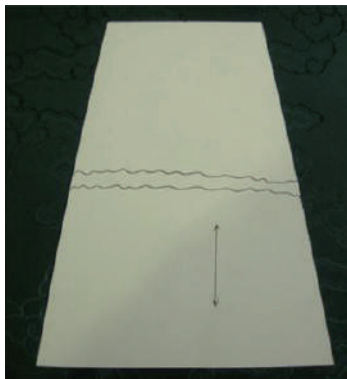
1) 이리자식 한복 패턴의 개발과 보급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경제 산업의 부흥과 생활 패턴의 변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서양 의복이 일상복으로 착용되고 한복은 점차 예복화, 고급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량 생산된 합성 섬유는 가격이 싸고 손질이 편하여 의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 인조 섬유의 개발은 의복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편리하고 기능적인 소재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현대 한복의 유행을 주도할 수 있는 한복 디자인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1970년 이리자는 자신이 처녀 적에 만들어 입었던 플레어 스커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 여성들의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A-line 치마 패턴(사진 1)을 개발하였고 French sleeve 저고리 패턴을 개발하여 현재의 한복 형태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치

마 패턴은 종래에 사용하던 직사각형 패턴의 윗부분을 잘라내어 사다리 형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주름을 잡아 완성된 치마는 밑단이 풍성하게 부풀려져서 A-line의 실루엣을 형성하게 되고, 그 밑에 치마 실루엣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개발된 페티코트와 구두를 착용하면 키가 크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 주는 현재의 치마 형태를 탄생시켰다. 또한 소매 진동선이 없는 저고리 패턴도 개발하여 이리자식 한복 패턴을 완성하였고 마네킹에 한복을 디스플레이하여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리자식 한복 패턴의 개발과 보급으로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한복을 착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시기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칼라 TV의 등장으로 복식 생활 전반에 걸쳐 색채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칼라 방송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시기였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료회의 및 86아시아게임 유치, 88올림픽 등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아시아의 중요한 외교국가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이 국내 외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부터 이리자식 한복 패턴으로 제작되었던 한복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리자식 한복 패턴의 개발과 보급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한복 마네킹 개발과 마네킹을 이용한 한복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보급

1978년도 일본에서 기모노를 입혀 전시하는 마네킹을 수입하여, 인형 작가였던 고故 허영씨와의 작업을 통해 한국인의 얼굴과 체형에 어울리는 한복 마네킹<사진 2>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마네킹의 제작비용이 고가였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특수한 전시관에서만 사용하게 되자 마네킹 제조업체에서 이리자가 제작한 한복 마네킹을 토대로 하여 저렴한 한복 마네킹을 개발, 생산하여 현재 의상 관련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 한복 매장에서 입혀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사진 1 이리자식 A-line 치마패턴〉



〈사진 2 이리자가 개발한 한복마네킹〉

3) 국내 최초 한복작품발표회를 개최 한복 디자이너 명칭을 사용

새롭게 개발한 한복 패턴으로 다양하게 디자인된 한복을 제작하여 1975년 4월에 최초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복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한복 디자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한복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여 주었다.

4) 현대 한복의 패션화

(1) 스타 마케팅의 시작

1970년대 여러 종류의 여성잡지들이 발간되고 이리자가 디자인한 한복이 발표되면서 한복이 일반인들에게 패션 아이템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아씨’, ‘별당아씨’ 등 사극 TV드라마 의상을 제작하면서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리자 한복의 화보 모델이 되어 각종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톱스타들의 한복을 지원해 줌으로서 디자이너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이른바 스타 마케팅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다.



〈사진 3 1972년 아플리케 한 한복〉
- 주부생활 1972



〈사진 4 당의를 응용한 한복〉
- 李利子韓服 p.182



〈사진 5 스팅글로 디자인한 한복〉
- 李利子韓服 p.269

(2) 한복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의 시작

한국일보에서 개최한 미스코리아 대회의 참가자들과 세계 각국에서 개최하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는 미스코리아들에게 한복을 디자인 해주면서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최우수민속의상상(1974년, 1977년)과 미스아시아 대회에서 최우수민속의상상(1977년)을 수상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한복의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복을 통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과 색채로 디자인한 이리자 한복이 각종 매스컴에 발표되면서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이리자 한복을 착용하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한복은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패션 산업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사진 6 1974년 최우수민속의상상 수상작〉
- 한국일보(1974.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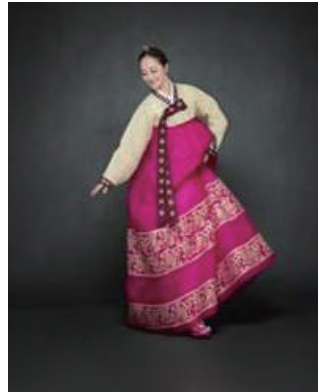
〈사진 7 1977년 최우수민속의상상 수상작〉
- 한국일보(1977.8.10)

5) 현대 금박 개발

1970년대 정부에서 실시한 이민 정책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고국을 떠나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민족복인 한복을 만들어 출국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자 물로 세탁할 수 있는 소재 개발과 경제적으로 오래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물세탁을 해서 지워지지 않는 금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런 금박은 은행에 다니던 친구의 명함에 금박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 것에 착안하여 드라이크리닝해도 지워지지 않는 금박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진 8 1975 색동과 금박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20



〈사진 9 2015 스란단 금박장식의 한복〉
- 이리자한복전시관 소장

Ⅲ. 연대별 이리자 한복 디자인의 발상

1. 이리자의 A-line식 치마 패턴과 French sleeve 저고리 패턴의 발상

1) 이리자의 A-line식 치마 패턴과 French sleeve 저고리 패턴

1960년대의 치마저고리 형태〈사진 10〉는 치마 패턴이 직사각형으로 재단되어 치마를 착용할 때 항아리 형태의 실루엣인 것과 비교해보면 이리자식 한복 패턴으로 디자인한 치마저고리 형태는〈사진 11〉 치마폭의 윗부분을 잘라내서 가슴 부분은 좁고 치마 밑단이 퍼지는 실루엣으로 변화하였고, 치마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페티코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속옷을 개발하여 착용시킴으로써 키가 작은 한국 여성들의 키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치마의 패턴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외교관으로 부임하게 된 부인들이 한복을 착용할 때 외국인들과 비교해서 키가 작고 뚱뚱해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여 키가 커 보이는 한복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던 중 자신이 처녀적에 만들어 입었던 플레어 스커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멋쟁이였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치마와 저고리 패턴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패턴으로 자신의 한복을 만들어 입고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리자식 한복 패턴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양복의 드레스와 같은 실루엣으로 변하게 되면서 현대 한복의 패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고리의 깃, 고름, 치마 밑단을 금박, 아플리케, 색동과 자수 등으로 다양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속고사, 양단, 노방, 깔깔이와 같은 합성 섬유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한복의 디자인과 형태면에서 일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0 1960년대
항아리형태의 한복〉
- 새生活大百科辭典 p.23



〈사진 11 이리자 한복패턴으로 제
작된 A-line 한복〉
- 李利子韓服 p.274

2) 이리자식 한복 패턴으로 제작한 한복에 대한 평가

1971년 정부에서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복식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한 ‘범국민복장콘테스트’에서 이리자식 한복 패턴으로 디자인한 치마저고리〈사진 12〉와 ‘아리랑드레스’라고 하는 리본형 옷고름 장식의 한복〈사진 13〉을 만들어 실용적으로 디자인한 한복이 최우수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하였던 드라마 의상을 1972년 최초로 이리자가 TBC와 KBS의 의상을 제작하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개인 디자이너가 의상을 협찬하고 대중들에게 디자이너로서의 인지도를 얻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2 ‘범국민복장콘테스트’
최우수 종합대상작〉
- 李利子韓服 p.13



〈사진 13 범국민복장
콘테스트 최우수 종합
대상작 아리랑한복〉
- 主婦生活(1972.1)

2. 이리자의 한복 디자인의 발상과 에피소드

1) 깃 없는 두루마기와 길이가 짧은 반두루마기 디자인의 발상

양지회 회원의 부탁으로 육영수 여사의 두루마기를 주문받게 되었으며 목이 길어서 한복 맵시가 뛰어 났던 육여사의 체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두루마기의 깃을 떼어내고 그 가장자리를 바이어스 처리하여 겹과 안을 번갈아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때 이미 한복으로 겹과 안을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 리버서블 아웃 웨어<사진 15>를 창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에는 육영수 여사의 한복을 전담하는 이수진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리자가 디자인한 깃 없는 두루마기를 보고 그대로 제작하였고 육영수 여사께서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때 착용하셨던 것을<사진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디자인한 길이가 짧은 반두루마기는<사진 16> 1970년대의 신부들에게 유행하였고 젊은 층에도 인기를 끌었다.



〈사진 14 육영수여사가 착용한 깃 없는 두루마기〉
- 사진으로 보는 광복 35년 下 p.175



〈사진 15 깃 없는 두루마기〉
- 李利子韓服 p.16



〈사진 16 1970년대 반두루마기〉
- 여원 1976.1

2) 미스코리아 대회와 최우수민속의상상 수상

또한 이리자는 미스코리아들의 한복을 담당하였는데 1974년 필리핀에서 열린 미스유니버스대회에서 우리나라 미스코리아가 그녀가 디자인한 한복으로 최우수민속의상상을 수상<사진 6>한 것을 시작으로 1975년 미스태평양<사진 17>, 미스월드<사진 18>와 1977년에 또 한 번의 최우수민속의상상을 수상<사진 19>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개발한 패턴으로 한복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창조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의 한복은 이리자식 한복 패턴의 개발로 치마저고리의 실루엣에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으며 치마폭과 저고리의 여러 부위에 금박, 자수, 색동, 아플리케, 스캔글 등 다양한 장식과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한 한복으로 변화된 시기였다.



〈사진 17 미스테평양 민속의상상 수상〉
- 한국일보(1975)



〈사진 18 미스월드 민속의상상 수상〉
- 한국일보(1975)



〈사진 19 미스유니버시티대회 최우수 민속의상상〉
- 한국일보(1977.8.15)

3) 애플리케 장식의 한복

궁중복식의 보補에서 착안하여 이불 단의 문양을 오려 내거나 태극, 봉황, 학 등을 수놓아 둥근 애플리케 장식을 하여 디자인한 한복은 이리자의 대표적인 초기 한복으로 양단이나 숙고사, 노방, 깔깔이 등 치마폭에 붙여서 착용자의 용도와 연령, 장소에 따라 색채나 문양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애플리케 장식의 한복은 1970년대의 이리자 한복을 대표할 만큼 약혼복이나 명절복, 파티복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진 20〉은 태극 문양을 원형의 보補 형태로 수놓아 디자인한 한복으로 미국 방문을 앞둔 육영수 여사를 위해 디자인한 것이었으나 국모로서 나라의 국기를 입기에 자신이 너무 보잘 것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으로써 착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제1회 한복작품 발표회 통해 소개된 후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 부인들 사이에서 널리 착용되기도 하였다. 〈사진 21〉은 가수 N씨와 윤복희씨의 약혼식을 위해 디자인된 한복으로 분홍색 공단에 봉황 문양을 수놓아 궁중 보 형태로 올려서 애플리케 장식을 한 것으로 한복의 용도에 따라 색채와 문양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진 22〉는 대한항공에서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유니폼 제작을 의뢰받아 디자인한 것으로 봉황을 둥글게 수놓아 보를 만들어 치마저고리에 장식을 하였다. 하늘을 상징하는 색채의 옥색 공단을 소재로 사용하고 봉황을 수놓아 비행시간 동안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아 디자인하였다. 이 옷은 오랫동안 대한항공을 상징하는 한복이 되기도 하였다. 〈사진 23〉은 중앙대학교 총장이셨던 임영신 박사님께서 국제대회에 참석할 때 착용하셨던 한복이다. 그 외에도 매년 연말에는 한복을 입은 여배우들의 모습을 담은 새해 달력이 유행하였는데 그 당시 달력에 이리자 한복을 입고 촬영하는 것이 여배우 〈사진 24〉의 인기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현재 패션화보 촬영과 비슷한 현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사진 20 태극문양을
아플리케한 한복〉
- 李利子韓服 p.48



〈사진 21 이불단을
아플리케한 한복〉
- 주간中央(1975)



〈사진 22 대한항공
승무원 한복〉
- 主부생활1976.1



〈사진 23 임영신 박사의
아플리케 장식한복〉
- 李利子韓服 p.29



〈사진 24 이불단 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23

4) 스란단과 은박, 금박 장식의 한복

1970년대 궁중예복치마로 착용되었던 스란치마를 응용하여 색상이 다른 소재를 붙여 스란단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은박〈사진 25〉과 금박〈사진 26〉을 찍어 현대적인 화려함과 전통적 한복의 미를 표현하였다. 1977년 미스코리아 김성희가 출전했던 미스유니버시티대회에서 최우수민속의상상〈사진 19〉을 수상하였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취임식 때 착용한 봉황 문양의 금박 장식의 한복〈사진 27〉과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가 독일 공연을 위해 금박으로 장식한 검정색 한복을 착용하였다.



〈사진 25 은박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88



〈사진 26 색동과 금박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100



〈사진 27 봉황문양의 금박장식 한복〉
- 週刊韓國(1980)

5) 바이어스로 재단한 색동 장식의 한복

섬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한복 소재의 개발과 생산이 증가하고 다양한 색상의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소재를 바이어스로 재단한 색동과 새롭게 개발된 금박을 치마저고리에 부분적으로 장식하여 전통적인 색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사진 28-30〉



〈사진 28 색동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20



〈사진 29 색동과 은박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56



〈사진 30 색동과 보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32

6) 자수 장식의 한복

해외 공관 설립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한복을 착용할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고 서양 파티복과 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한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사진 31〉은 1976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함병춘 주미대사 부인인 심효식 여사를 위해 디자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꽃을 수놓아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표현된 작품이다. 당시 한국과 미국의 매스컴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는데 그 이후 영부인들과 대사 부인들이 준비해가는 예복이 되기도 했다. 〈사진 32〉는 1975년에 제1회 작품발표회에 출품되어 크게 유행했던 약혼복으로 치마와 저고리 소매에 장미꽃 수를 피라미드 형태로 수놓아 키가 커 보이도록 디자인한 작품이다. 1970년대에는 아플리케나 스팅글, 금박, 자수 등을 한복 장식에 사용하여 화려하고 과감한 시도를 한 것이 각종 잡지와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예복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31 1970년대 무궁화꽃수로 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50



〈사진 32 1970년대 장미수로 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46

7)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

이리자는 1978년 천연 소재인 무명과 명주, 안동포, 생명주 등에 각 분야의 작가들과 유명화가와 함께 작업하여

제작한 작품(사진 33-34)들을 제2회 베옷발표회에서 발표하여 화려하지 않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기품을 엮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처음 이리자 한복이 유행을 하면서도 한복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너무 화려해서 한복 자체의 단아함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베옷에 활용한 작품을 보고 한복 디자인에 대한 발상이 뛰어난 디자이너라는 찬사를 얻게 되었다. 작가들과의 협업해서 제작된 작품들은 2005년 프랑스 정부와 프레타포르테의 초청으로 한복 전시회와 작품 발표회에 출품(사진 35)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영국왕실 국립대학과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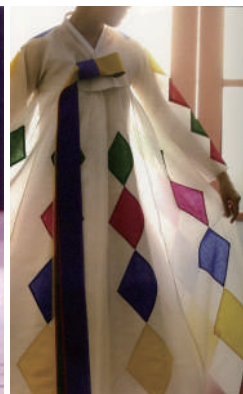
〈사진 33-34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한복〉
- 李利子韓服 pp.80~83



〈사진 35 2005 프레타포르테 전시한복〉
- 李利子韓服 p.79

8) 1988년 올림픽 개최를 통해 한복을 알린다.

1980년대 초 칼라 TV의 등장으로 한복 디자인에 사용된 금박이나 지수 이외에 그림, 염색 등을 치마저고리 전체에 장식하여 한복 색채는 다양하고 고급스러워졌으며 개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화려하고 부풀림이 강해 무대이상 같았던 한복이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잡지와 작품 발표회를 통해 전통적인 색채 사용과 절제된 디자인, 천연소재와 바느질 기법 등을 사용하여 멋스러운 한복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 화려했던 한복은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한복에 대한 안목이 높아져 전통 한복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전승하려는 변화가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86아시안게임 유치와 88올림픽 개최는 국내외적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어 정부에서 주관하는 한복작품발표회(사진 36-38)를 통해 한복으로 민간 외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진 36-38 1988년 서울올림픽개최 축하 패션쇼 작품〉
- 이리자한복전시관 소장

9) 색동 장식의 한복과 마이클 잭슨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한국공연이 논의되던 중 마이클 잭슨의 부모님이 이리자 한복을 방문하여 본인들의 한복<사진 39>을 구매하였을 뿐 아니라 마이클 잭슨의 한복을 주문하였다. 색동이 지니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 배색의 우수성을 활용하여 열정적이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마이클 잭슨의 무대 한복<사진 40>을 디자인하였다. 결국 서울에서의 공연은 성사되지 못해 아쉬웠다.



<사진 39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기사>
- 이리자한복전시관 소장



<사진 40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위해 디자인한 한복>
- 李利子韓服 p.234

10) 그림 장식의 한복

지워지지 않는 염료와 나염기법, 단청 등의 그림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복 전체에 그림을 그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한복<사진 41-42>으로 디자인하거나 그라데이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된 한복<사진 43>을 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6년 제4회 작품발표회에 출품한 작품으로 단청에 사용하는 염료로 치마 밑단과 저고리의 깃, 끝동, 고름에 부분적으로 그림을 그려 배색에 따라 약혼복과 폐백복으로 다양하게 착용하였다. 특히 두들긴 명주와 노방, 모시 등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단청 그림과 천연 소재가 주는 광택의 조화로움을 표현한 작품<사진 44-45>이다.



<사진 41 목단 그림으로 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64



<사진 42 금분 그림으로 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109



<사진 43 그라데이션 기법 장식 한복>
- 李利子韓服 p.179



<사진 44 단청그림 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214



<사진 45 단청그림 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243

11) 천연소재의 한복

1980년대 중반부터 화려하고 과장되게 디자인되던 한복이 부분적으로 장식하거나 중간색상, 천연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절제되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으로 복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주로 두들긴 명주나 생모시, 삼베 등에 전통 자수로 장식하여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한복 디자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천연 소재와 전통적인 배색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명주<사진 46>나 모시<사진 47>에 홍두깨 처리를 하여 천연소재가 지닌 질감을 표현하여 전통적인 멋스러움과 때깔을 내었다. 또한 평상시에 착용하기 쉬운 색상을 활용하여 배색함으로써 한복에 대한 미적인 감각을 완성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화려하게 디자인된 현대 한복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한복으로 변하게 되었다.



〈사진 46 두들긴 명주에 자수로 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212



〈사진 47 두들긴 모시에 단청그림으로 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201

12) 전통으로의 회귀

1990년대 이후 이리자한복의 디자인이 단아하고 한국적인 소재와 색상, 문양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과장된 치마폭의 부풀림을 간소화시키고 유연하고 완만한 흐름을 갖는 실루엣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각 연령에 적합한 색상으로 배색하거나 착용 용도에 알맞은 디자인을 선택하여 노방, 명주, 모시, 삼베, 무명 등의 치마폭 사이에 바이어스로 선을 넣거나 잣물림, 싯코 짜기, 조각 잇기, 누비와 같은 전통적인 장식 기법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치마저고리 이외에 덧저고리, 배자에 현대적인 자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려 오랫동안 착용했던 한복 위에 덧입게 하여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복을 착용한 듯한 느낌을 주어 현재까지 많이 착용되고 있다.

(1) 잇기 장식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한복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조각을 이어 장식한 한복<사진 48-50>은 개성적이고 전통적인 맛을 표현해 주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조각보의 아름다움을 한복에 응용하였다. 조상들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이 기법은 이리자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업하였던 한복이다.



〈사진 48 조각 잇기로 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256



〈사진 49 저고리를 조각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260



〈사진 50 삼베조각 장식한 한복〉
- 李利子韓服 p.250

(2) 전통적인 바느질 기법 장식의 한복 조각

바이어스선 치기〈사진 51〉, 누비 장식〈사진 52〉, 식코 싸기〈사진 53〉 등 전통적인 장식 기법을 모시와 명주, 삼베를 소재로 사용하여 한복의 여러 부위에 간단하게 장식을 하여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벗어나는 효과를 얻는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사진 51 바이어스선 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291



〈사진 52 누비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279



〈사진 53 식코 싸기 장식의 한복〉
- 李利子韓服 p.225

13) 대한민국 영부인들의 한복 패션

(1) 한국인으로 사셨던 푸른 눈의 영부인

누구보다도 뻗속까지 한국인으로 살고 가셨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며느님 조혜자 여사님을 통해 한복을 준비하 시곤 하였는데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자신의 수의로 한복을 입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작해 드렸던 한복 〈사진 54〉을 실제로 수의로 입으셨다고 전해들은 바가 있다.

(2) 한복 패션의 리더였던 영부인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한복을 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한복을 착용하여 전 세계에 한복을 가장 많이 알

렸던 역할을 한 한복의 패션 리더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순자 여사가 착용했던 한복은 상하 단색으로 금박이나 자수, 그림으로 장식하여 화려하다.



〈사진 54 프렌체스카 여사의 한복〉
- 이리자한복전시관 소장

(3) 이리자를 많이 아껴주셨던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한복을 지어 가시고는 한복 박스와 보자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곱게 보관하셨다가 돌려보내 주셨다. 그 배려심을 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 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챙겨 비서들에게 보내 주셔서 영부인의 한복을 제작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을 높게 격려해 주셨던 분이였다. 이리자 전시관에 기증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했을 때 선뜻 대통령 당선 후 영부인으로 처음 대중 앞에 나설 때 착용하셨던 한복과 두루마기〈사진 55〉, 그리고 당신이 의미 있게 착용하셨던 한복을 십 여벌 내어주신 이희호 여사 덕분에 영부인들의 한복을 소장하고 싶어 하는 몇몇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게 되었다. 연로하신 관계로 대부분 치마길이는 짧게 하여 보행에 편리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옅은 파스텔 계통의 분홍, 살구빛, 옥색, 흰색계열의 한복〈사진 56〉으로 디자인 하였다.



〈사진 55 이희호 여사의 한복〉
- 이리자한복전시관 소장



〈사진 56 미국방문시 착용한 짧은 치마와 한복〉
- 이리자한복전시관 소장

(4) 한복이 가장 잘 어울렸던 영부인

이리자는 생전에 권양숙 여사께서 둥근 어깨와 반듯한 이마를 지닌 용모로 착용 시 어떤 디자인의 한복을 입어도 유독 잘 어울리는 영부인이라고 했다. 해외 순방 시 방문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한 한복(사진 57-58)으로 방문국마다 매스컴을 장식하였다. 디자이너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던 분으로 기억하며 자신이 착용하셨던 한복 기꺼이 내주셔서 이리자 한복전시관에 여러 벌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57 권양숙 여사의 일본 방문 시 착용한 한복〉
- 이리자한복전시관 소장



〈사진 58 영국 방문 시 착용한 한복〉
- 이리자한복전시관 소장

IV. 감사의 맺음말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의 1주기 회고전을 준비하면서 한복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숨씨가 뛰어났던 장인으로서의 이리자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디자이너로서의 이리자를 볼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의 중심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어머니의 영전에서 일 년 뒤 당신의 일주기에 회고전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1주기 회고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와 끝맺음을 함께 해주신 경운박물관 관장님과 부관장님, 그리고 경운박물관 관련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인연으로 어머니 작품을 사진으로 작업해 주신 서헌강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
경운박물관 · 국립대구박물관
공동기획전

李利子 추모 한복전

손끝의 정성, 예술이 되다

2021. 04. 22. ~ 08. 25.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주최 및 주관	경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협조	이리자한복전시관
책임기획	경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진행	학예사 경운박물관 장경수 박경자 이경희 이혜원 김종민 박상진 학예사 국립대구박물관 민보라 학예연구원 경운박물관 문희원
도록편집	배방훈 이계호 호원숙
진행	설영자 손창옥 이숙명 전명애 김용정 이미영 임연옥 이정희 한소영 김명희 이영희 김혜진 정순은 지미영 김현순 공희숙 민승옥 이경순 최의려 최은순 이수미 강진선 김규인
사진	서현강
도록 디자인·제작	디자인문화 예병억 정진모 권유리
AR art	ARTIVIVE
발행일	2021년 4월 28일
발행인	장경수
발행처	국립대구박물관 42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Tel. 053-768-6051~2 https://daegu.museum.go.kr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06324 서울구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內 경운박물관 Tel. 02-3463-1336 Fax 02-3463-1331 http://kwmmuseum.org/
ISBN	979-11-954350-9-8 03630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경운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21 Kyungwoon Museum, Daegu National Museum

본 도록은 국립대구박물관의 복식문화 박물관 협의체 공동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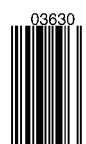
책에 게재된 자료와 사진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9 791195 435098



03630

ISBN 979-11-954350-9-8 03630